

# 세계적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되살린 고향의 추억

ACC 지역작가초대전 '이이남의 산수극장' 오늘 개막

7월6일까지 복합전시 5관서  
산수화 주제·신작 24점 선배  
예술·기술 융합한 미디어아트  
고향·부모 향한 그리움 담아내  
“바쁜 일상서 잊힌 가치 조명”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부모에 대한 애환을 기술로 융합해 풀어낸 전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 들어선다.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작가이자 대한민국 미디어아트를 선도하는 이이남 작가가 펼쳐낸 예술세계를 체험할 것으로 기대된다.

ACC는 3일 'ACC 지역작가 초대전-이이남의 산수극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4일부터 오는 7월6일까지 열릴 전시를 소개했다. ACC 문화창조원 복합전시5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나의 살던 산수 △어머니 그리고 산 △고향산수도 △아버지의 폭포 △산수극장 △고향의 빛 등을 주제로 24점의 신작으로 채웠다.

이이남은 담양에서 태어나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다. 고전 서화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미디어아트를 선보여 주목받았으며 ACC와는 지난 2015년 개관 페스티벌 공연 '세컨드 에디션'을 시작으로 창작자 센터 강연 프로그램 'ACT 렉처', 야외전시 '하늬풍경' 등을 개최하며 인연을 맺어왔다. 지난해에는 주중한국문화원 협력전시 '모

두의 도원'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전시는 ACC가 개관 10주년을 맞아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고 광주·전남 미술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조명하기 위해 기획된 지역작가초대전의 일환이다.

3일 현장에서 감상한 이 작가의 작품들에는 그간 몰두해 왔던 동양 미학을 통한 본질적 탐구, 추상적인 작업과는 또 다른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통 산수화와 호남의 자연 풍경, 가족과의 추억을 아우르며 고향의 향수 어린 시선을 미디어아트로 담아냈다.

이번 전시 주제인 '산수극장'은 작가가 낯선 사람들과 공연을 보며 다양한 삶에 공감하던 모습에서 출발했다. 산수극장을 거닐며 함께 그리는 고향을 추억하고 나누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셈이다.

실제 작품 속 담양의 병풍산과 전남 곳곳을 따라 흐르는 영산강은 ACC를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향수를 자아내고, 익숙한 산수화와 실경의 결합으로 이어진 남도의 강산이 친근함을 선사한다.

'나의 살던 산수'에서는 어린 시절 달력에서 봤던 산수화들을 영상과 겨울 좌대 위 두루마리로 펼쳐내며 관객들로 하여금 함께 고향을 회상케 한다.

물과 나뭇배, 바위로 이뤄진 '어머니 그리고 산'은 작가의 어머니가 생전 유람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산에 머물기를 염원



이이남 작 '산수극장'.

ACC 제공

하는 마음이 투영된 설치작품이다.

또 추사 김정희가 유배 시절 그린 '세한도'에 계절감을 부여한 '고향산수도'는 인상적인 상상력과 공간 배치, 연출력을 선사하고 10인치 모니터에 8분의 영상을 가둔 '아버지의 폭포'는 끝없이 흐르며 산을 지탱하는 폭포처럼 묵묵히 일했던 아버지의 강인함을 되새긴다.

이 밖에도 '산수극장'과 '고향의 빛'에서 담양에 자리한 대나무와 병풍산을 거대한 영상설치 작품으로 담아내 자연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

이번 전시는 호남 예술의 자연친화적 서정성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이어가고

있는 이 작가의 작품세계를 망라해 선보이는 자리다. 미디어아트로 구현한 고향 풍경과 옛 시, 산수화의 연결은 향토적인 정취를 담아냄과 동시에 개인적인 서사를 보편적 감성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다.

이 작가는 "고향과 자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며 작업했다. 기술 중심의 현대사회에서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잊히고 있었던 것들을 상기하는 기획"이라며 "이번 전시 또한 총체적인 삶에 관한 개인적 이야기임과 동시에 관객 모두가 공감하고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작업했다. 특히 전시 주제에 맞게 미디어와 오브제의 연결을 강화해 몰

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시 외에도 ACC는 오는 6월 미디어아트 및 지역미술 전문가들과 함께 이이남의 작품세계를 고찰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시 관람료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욱 ACC 전당장 직무대리는 "일상에서 산수를 만끽하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처럼 이이남 작가가 펼쳐낸 '산수극장'은 ACC를 찾는 관객들 모두에게 고향의 자연을 유람할 시간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 참여자 국제 공모

'지능시대' 주제 아이디어 제시  
30일까지 누리집 통해 8팀 선발  
아트&테크놀로지 등 5개 분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융복합창·제작 지원 프로그램인 '2025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에 참여할 국내외 제작자를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ACC는 지난 2015년 개관 이후 10년째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제작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미래지향적이고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의 개발과 제작, 시연을 지원해 왔다.

올해 주제는 '지능시대(The Intelligence Age)'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도래하게 될 데이터 세계 속 제3의 지능과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를 탐구하고자 한다. 모집 분야는 △아트&테크놀로지(4팀) △키네틱미디어(1팀) △오디오비주얼(1팀) △믹스드 리얼리티(1팀) △이머시브 사운드(1팀) 등 5개다. 분야에 따라 각 2000만~3000만원의 프로젝트비를 지급한다.

이번 공모는 주제에 부합하면서 아트&테크놀로지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획력과 관련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한 예술가, 전문가, 연구자, 엔지니어 등 창·제작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ACC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6월 8개 팀(혹은 개인)을 최종 선발한다. 참여자들은 오는 8월부터 4



개월간 주제 및 기술 워크숍, 전문가 자문 등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창·제작 스튜디오공간과 설비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를 완성한다.

특히 올해는 레이저, 조명, 프로젝션 맵핑 등 키네틱 미디어 프로젝트 실험이 가능한 복합스튜디오와 4면 리어 스크린, 모션 캡처 카메라 시스템과 64채널 입체 음향 시스템을 갖춘 미디어스튜디오에서 오디오비주얼, 믹스드 리얼리티, 이머시브 사운드 등 다양한 아트&테크놀로지 프로젝트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참여자들의 최종 프로젝트 결과물은 ACC 개관 10주년인 오는 11월25일부터 2주간 ACC창·제작스튜디오에서 전시로 만나볼 수 있으며, 퍼포먼스, 프레젠테이션,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시민에게 선보인다.

참여 신청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회원가입 후 지원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욱 ACC 전당장 직무대리는 "지난 10년간 전 세계 창의적인 인재들의 융복합 창·제작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해 온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를 올해도 마련했다"며 "실험적인 콘텐츠를 선보일 창·제작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 식목일 맞아 ACC서 펼쳐지는 식물에 관한 도서 행사 '눈길'

5일 김금희 작가 초청 북토크 개최  
도서관서 연계 일러스트 전시 열려

식목일인 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김금희(사진) 작가를 초청해 'ACC 도서관과 이야기: 식물 하는 마음 북토크'를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진행한다. 이와 연계한 'ACC 도서관 미니원화전: 식물적 낙관 일러스트展'도 2달간 ACC 도서관 이벤트홀에서 열리며 시민들의 발길을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3일 ACC에 따르면 김 작가는 인기 도서 '식물적 낙관', '대온실 수리 보고서'의 저자로 이번 북토크를 통해 자신의 산문집에 관해 이야기하며 최근 작품 '대온실 수리 보고서', '나의 플라 일지'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작품 '식물적 낙관'은 작가가 식물에 기



록한 산문집인 동시에 이를 통해 이뤄진 긍정적인 순간들에 대한 기록이다.

김 작가는 2009년 한 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센티멘탈도 하루 이틀', '너무 한낮의 연애', 장편소설 '경애의 마음', '대온실 수리 보고서', 산문집 '사랑 밖의 모든 말들', '식물적 낙관', '나의 플라 일지' 등을 펴냈다. 신동엽문학상, 젊은 작가상 대상, 현대문학상, 우현예술상, 김승옥 문학상 대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 유수의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ACC는 이번 북토크를 개최하며 책이 단순히 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표지나 삽화 등을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합쳐진 복합 콘텐츠를 알리고자 한다.

연계 행사로 마련되는 미니원화전에서는 라키키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식물적 낙관' 책 속의 다양한 원화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라키키 일러스트레이터는 자연의 색감을 따뜻한 시선으로 표현해 왔다. 식물 본연의 편안한 모습이 김 작가의 글과 어우러져 책에 더욱 건강한 기운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날 북토크 후에는 김 작가의 사인회가 진행되며, 관객 15명을 초청해 사인본도 증정한다.

김상욱 ACC 전당장 직무대리는 "4월은 책과 관련된 '도서관 주간(12~18일)', '도서관의 날(12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23일)'과 식물과 관계된 '식목일(5일)'이 함께 있는 달"이라며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ACC에서 마련한 식물에 관한 다양한 도서 행사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 ACC재단 "어린이와 예술로 소통"

어린이창작실험실 상반기 프로그램  
어린이·가족 대상 6일부터 13개 교육

어린이와 가족, 예술가가 함께 기발한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예술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찾아온다.

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6일부터 6월29일까지 '2025 어린이창작실험실 상반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아시아 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한 다양한 놀이와 창작 활동을 통

해 어린이들의 문화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오감 자극 놀이 △가족과 함께하는 예술 워크숍 등 13종의 자기 주도적 예술 창작 교육이 제공된다. 참여자들은 로봇과 함께 운동회를 하거나 인공지능(AI)과 아시아 동화 여행을 하는 등 실험적 예술창작 활동을 경험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위한 '우리는 1학년' 프로그램과 6~9세를 대상으로 한 '내 손을 잡아줘' 프로그램 등이

눈길을 끈다.

이 밖에도 현대어린이책미술관과 협력한 'MOKA와의 숲 여행', DDP와 함께 하는 '궁극의 케이크 공장'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 색다른 직업을 탐색해 보는 '내 맘대로 도서관', ACC 일대를 어린이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ACC 어린이 해설사', 예술가의 실험적 작품을 살펴보고 새로운 생각과 창의적 표현 방식을 체험하는 '수상한 예술' 등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상반기 프로그램은 각 강의별로 유·무료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4월부터 ACC재단 누리집(www.accf.go.kr)에서 하면 된다. **박찬 기자**